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7권 제1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16, 6, Vol. 7, No. 1, 81-96.

모래놀이치료에 표현된 네팔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의 지진경험 이미지

Image Experiences in Sandplay Therapy in Adolescents Living in Welfare Facilities who Suffered Nepal Earthquake

이세화(Lee Sehwa)* Prakash Shahi**

<Abstract>

Trauma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the earthquake affected people who have an especially adverse effect on adolescents living in welfare facilities, they suffer psychological di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This study analyzes the symbols,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 expressed during sandplay therapy for adolescent who suffered the Nepal earthquake and living in welfare facilities. In April 2015, 9 months after the great earthquake in Nepal, sandplay therapy were provided to 18 adolescents living in welfare facilities in the Kathmandu, under the consent of the care-giver, records from three adolescents were provided. The sandplay therapy was conducted one-on-one between a patient and a therapist, for 45-minute each three sessions over 10 days. Sandplay therapy takes a Dora Kalff's approach where a safe and protected environment is provided in a non-directive, non-structured approach. There five themes were commonly found in treatment sessions: Safety and protection, peaceful garden, scene of risk or earthquake, God who is related to everything, and the future of life and independence. In at least two sessions, they have made pictures of direct verbal expression and scene of risk or earthquake, and simultaneously expressed religious image of Buddha or Shiva. Additionally, they decorated a garden praying for paradise or expressed this verbally.

Keywords : sandplay therapy, adolescents, images, Nepal earthquake, experience

* 전주마라아동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gginmandu@hanmail.net)
** Trichandra Multiple College, Tribhuvan university, Clinical Psychology

Ⅰ. 서 론

자연재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25일 규모 7.8의 강진이 네팔에서 발생하면서 8천여명의 사망자와 60만 채의 파손가옥 등의 피해를 남겼다.

지진과 같은 재난 피해지역 사람들은 우울, 동요, 악몽, 두려움, 의존성, 퇴행 등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다(김기태, 2006; 최남희, 2006; 이윤주, 2004). 이러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Lazarus(2003)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극도로 위험한 것으로 경고 없이 찾아오며 매우 파괴적이면서 개인의 과거 경험과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잠재적으로 심리적 고통이 증가됨에 따라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재난을 통한 외상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 발달적으로 환경에 민감하고, 아직 신체, 인지 및 성격발달 과정 중에 있는 시기로 더욱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Cohen, 2003; Allen, 1995). 재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재화시켜 충동적,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야기시키거나 가출 또는 비행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자기 소외적 행동, 섭식장애, 우울증, 학업실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Allen, 1995; Everstine & Everstine, 1993). 즉, 청소년기의 재난피해는 외상경험과 직접 관련된 적응문제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러 2차적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의 재난피해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에 보다 더 연구되기 시작되어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정신화 능력이 품행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최현아, 2014), 세월호 사건 이후 지도·활동 활성화 방안(권일남, 2014) 등 선행 되었지만,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더욱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청소년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심리적 충격 관련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발견하고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적·외적 자원을 동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오혜영 외, 2012).

네팔은 2007년까지 지속된 내전과 더불어 경제등급 악화로 인한 불황으로 보호자를 잃거나 양육에 어려움이 겪은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구호단체기구를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이 급증했고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은 생활상의 고아나 다름없으며 시설보호 이전의 가족 갈등, 가족해체 경험으로 입소 이전부터 정서적인 외상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장영인, 1995).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규칙적이며 기계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므로 일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자기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김은혜, 2006).

더욱이 네팔은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으로 수용과 체념하는 종교적인 특징을 보인다. 네팔인의 종교적 사상은 초자연적인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들은 이에 복종해가는 것으

로 인식되며 일부는 카르마(karma), 즉 업보 탓으로 인간의 선악 행업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본다(연합뉴스, 2015). 또한 그들은 붓다의 가르침이 약속한 내면 평화만을 강조하면서 우리 삶을 가로지르는 불확실과 공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이성동, 2015). 네팔의 종교적 사상은 지진 역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지진피해로 인한 불안, 우울, 원망감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신에 대한 기원을 통해 내세에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이 지진 피해에 대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한다(조준호, 2004).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은 이전의 외상경험과 자연재해로 인한 2차적 외상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에 있어 다시금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들이 종교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것과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집단 속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채영순, 2000),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김미형, 2008).

모래놀이치료는 감정표현이나 언어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 놀이를 통해 상징적인 생각과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Kestly, 2001). 모래와 피규어 등의 상징물을 통하여 무의식에 있는 사고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래놀이치료가 외상경험을 외현화함으로써 갈등과 외상을 해결하고 숙련감과 통제감을 발달시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Kalff, 2003).

본 연구는 네팔 대지진을 겪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재해의 외상에 대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그들의 경험이 모래장면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는 어떠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네팔 현지에서 2015년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9개월 이후 10일 동안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만 14세 ~ 만 18세 이하 1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개별 모래놀이치료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개별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에게 첫 회기에 구조화(시간, 공간), 연구 목적 및 내용, 과정을 사전교육 하였으며, 매 회기 전 과정의 녹화 및 사진촬영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연구결과출판과 관련된 동의(사진개제 및 인터뷰 내용 개재 포함)한 스칼(가명, 17세), 로지(가명, 15세), 루키(가명, 18세) 3명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네팔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인구 밀집 지역으로 최대 피해지역인 수도 카트만두에 있었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여진을 경험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진 당시 건물이 흔들리면서 밖으로 긴급하게 피신해 같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다른 이웃의 가옥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들은 임시거주 텐트로 시설아이들 모두 함께 1주일간 생활하였으며, 모래놀이치료를 할 당시는 시설에서 생활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네팔 카트만두 지역의 아동복지 시설기관을 대상으로 전화, 우편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그 중 가족 혹은 법적대리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며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협조를 보였던 D기관을 선정하였다. 시설 기관 내에 있는 원장실과 작은 방에서 개별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었다. 10일 동안 3회기로 내담자(연구대상) 1명과 치료사(연구자) 1명의 일대일 개별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모래놀이치료는 Dora Kalff의 접근방식으로 자유롭고 보호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비지시적, 비구조화의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Ⅲ. 모래놀이치료과정

1. 스칼의 사례

스칼은 17세 고등학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입소하여 시설에 생활 하고 있다(정확하게 몇 살에 입소되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엄마는 말레이시아에 살며, 아빠는 네팔의 다른 지역, 남동생은 풋볼선수로 스페인에 살고 있다.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시설 건물 안에 있다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나왔고, 지진으로 인해 다친 곳은 없다고 했다. 학교생활은 좋고 과학을 좋아하며 나중에 의사가 되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모래장면에서 주로 보호와 안전, 평화로운 정원, 신 또는 신과 함께 하는 일상, 미래의 삶과 독립을 표현하였다.

그림 1은 첫 번째 모래장면인데, 그는 집이 사람한테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왼쪽 상단에 집이 있으며 그것과 비슷한 크기의 부처상이 집과 대칭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다. 부처상을 가리키며 좋아하는 신이라 하며 그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집 아래는 개가 있는데, 집을 지키고 있으며 누군가 왔을

그림 1

때 짖는다고 하였다. 그 옆에는 젖소는 자신이 믿는 신으로 여신과 남신을 숭배하며 자신들에게 우유, 치즈, 버터 등의 많은 것들을 준다고 했다. 모래상자의 하단을 보면 큰 뱀이 있는데, 이는 만다라 뱀이기도 하고 두렵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동물이라고 했다. 지진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이 이전의 불안과 걱정(자신이 처한 환경과 가족에 대한 것일 수도 다른 외상일 수도 있으나 분명하게 불안과 걱정을 나타낸 것)과 같은 감정을 자극했다.

그림 2

그림 3. (그림 2의 확대된 사진)

그림 1과 비교했을 때 그림 2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을 둘러싼 울타리이다. 그림 1에서 집과 누워있는 남자 그리고 부처상 앞에 개, 젖소가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믿는 신

이라고 말했던 젖소와 집을 지키고 무언가를 경고하는 개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림 2 울타리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마치 두렵고 위험한 존재인 뱀으로 부터 자신과 자신의 터, 그리고 자신의 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닐까?

1회기 이후 꿈을 꿨는지 물어보자 꿈에서 큰 뱀 하나를 봤는데, 알을 낳는 새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뱀은 위험한 거였다. 새가 앉자마자 뱀이 새를 잡아먹었다. 이 꿈은 그의 현실에 대한 것을 반영하였는데, 위험한 뱀이 새를 잡아먹는 것처럼 자신이 꿈꾸고 있던 가능성에 대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면서 피겨를 선택할 때에도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 "(가운데 울타리 안에 창을 든 남자 인디언)피겨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작은 강아지가 날 구할 수 있을까요?"

울타리 안 가운데 구슬과 삼지창이 놓인 곳은 정원이며, "*안전하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언급하였다. 거기에 놓인 구슬은 자신을 지켜주는 시바신에 대한 신호로 이곳을 지키고 시바신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구조가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치료사를 만났다는 것도 시바신의 도움이라 말했다. 시바신에게 보내는 신호는 위험으로부터 신이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상징이다.

곧이어 시바신의 제 3의 눈에 대해 말했는데, 시바신이 화를 내면 그의 세 번째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였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신과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신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화를 신에게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회기에 무표정 있었던 얼굴이 화난 얼굴로 변하였으며, 불만스러움을 표현하는 언어적 반응도 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4

세 번째 회기에서 스칼은 그림 4와 같은 모래장면을 만드는 동안 반복적으로 *"home~home~my home~"* 흥얼거렸다. 웃는 얼굴로 모래상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자기의 집을 만들고 싶고 가족들과 강아지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는 신에게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바라는 것을 표현했다면, 그림 4에서는 신의 보호와 안전 아래에서 평화를 꿈꾸는 미래의 삶과 향후 시설의 독립에 대한 것을 묘사하였다. 가운데 두 자동차는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내적인 그의 회복에너지의 상징이다. 또한, 내담자 방향에서 집과 자동차와 정원 그리고 가족, 개구리까지 연결된 길은 마치 생명의 나무를 연상케 한다.

2. 로지의 사례

로지는 15세 8학년 여학생으로 할머니랑 살다가 7세 때부터 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했다. 친엄마는 12세쯤 돌아가셨고, 친언니와 남동생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아빠는 새엄마와 이복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이랑 같이 살고 있다. 현재 같은 시설에서 청소담당을 외숙모네 가족과 시설에서 함께 지낸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2층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 나갔다고 하였다. 말하는 동안 계속 천식 환자처럼 기침을 여러 번 했으며 한 번 시작된 기침은 1-2분정도 길게 했다. 어릴 때부터 호흡기가 약했는데, 지진 이후 심해져서 약을 복용하면서 좋아졌다고 했다. 로지는 모래놀이치료에서 주로 위험한 장면, 신, 보호와 안전을 표현하였다.

그림 5

로지가 만든 첫 모래상자 그림 5에는 왼쪽 하단 침대와 거울을 보는 여자는 오른쪽 뱀과 호랑이가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급하게 아이들과 뛰어나갔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외상경험을 모래장면에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뱀을 큰 아나콘다라고 했고, 아주 힘이 세고 무서운 것으로 언급했는데, 갑자기 닥쳐왔던 위험한 상황인 지진을 상징한다.

첫 회기에서는 지진을 언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모래상자 그림 6에는 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과 회복 에너지가 등장했다. 실제로 기침도 조금 줄었고 말수가 늘었으며 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흥얼거리는 행동을 보였다.

그림 6

두 번째 모래상자 그림 6은 여기저기 모래자국들, 왼쪽 하얀 집을 지키는 개, 그 앞에 집을 향하는 의사가 있다. 직접적인 지진을 언급했고, 현재 네팔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 다음 소를 말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표현했다.

> "이곳은 카트만두라고 불리는 도시이고 매우 어두운 밤이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 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의사들이 구해줬어요" "소는 우리가 믿는 신이에요. 우리에게 많을 것을 주고 모두 소를 사랑해요. 의사들, 외국인들 그리고 당신(치료사를 바라보며)도 온 건 신이 해준 거에요!"

3. 루키의 사례

루키는 18세 고등학교 남학생으로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다리 위에 있어서 재빨리 내려와 주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뛰었다고 했다. 그 이후 우울하고, 뉴스에서 다른 지역 피해를 보면서 죽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더 우울하고, 하루 이틀은 계속 잠만 잤다고 했다. 며칠 지난 후에도 악몽을 가끔 꾸었고, 약간 두통, 잠을

깊게 잘 수 없으며 때때로 피곤함에 아프다는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였다. 루키는 모래놀이 치료에서 주로 보호와 안전, 위험 또는 지진 장면, 신과 신전, 평화로운 정원을 표현하였다.

그림 7

첫 번째 모래상자 그림 7은 왼쪽 시바신상과 그 앞에 음식, 동물들은 시바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시바신은 생명을 주고 돌보고, 가끔 심심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과의 밀접한 관계가 묘사되었다. 가운데 새가 있는 건물은 금이 간 집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끊어진 다리, 누워있는 경찰이 있다. 오른쪽 상단에 호랑이는 더 위험한 존재이므로 언제 나올지 몰라 울타리를 놓았다고 했다. 호랑이는 지진과 상징적인 삶의 흔들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과 그의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징으로 울타리를 사용했다.

그림 8

그림 9. (꿈에서 봤던 눈)

울타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데(욥1:10), 반대의 경우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은 대적의 침략을 의미한다. 약탈자, 짐승의 출입을 막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가시나무로 설치하는 울타리(마21:33)처럼 루키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회기 그 날 밤에 꿈 내용을 만들었다. 꿈속에서 혼자 집에 있었다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려고 계속 뛰었고 거대한 거인과 괴물들이 쫓고 있었는데, 거대한 큰 눈이 바라보면서 큰 호랑이(푸른색으로 얼굴은 하얀 털이 있음)와 거인과 괴물들이 위협적으로 달려와 잡혔다고 했다. 이처럼 유사하게 지진 이후 가끔 꿈을 꿨다고 하였다. 쓰러지는 나무, 작은 동물들과 뛰어가는 사람은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긴박하고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꿈에서 등장한 거대한 눈과 큰 호랑이는 힌두교의 시바신이 세 눈 중 미간 사이의 한 눈이 불에서는 백호로 변했다는 신화를 연상케 한다. 또한, 이마 중앙에 있는 그리스 신화의 키크로프스의 눈처럼 초인적 힘, 몽고전승의 도아 소호르처럼 걸어서 3일 걸리는 앞까지 보이는 천리안(종교학대사전, 1998)의 눈과 같이 모든 걸 꿰뚫어보는 신의 눈이다.

Ⅳ. 분석방법

각 회기 동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의 언어적 보고, 비언어적인 행동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얻었다. 모래놀이치료를 경험하면서 매회 보이는 다양한 행동과 언어적 표현, 모래장면에 대한 보고 등 모래놀이치료 진행과정은 연구자가 일화기록법에 의하여 관찰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동시에 비디오, 카메라로 청소년의 행동을 촬영하고 전사하였으며, 각 회기마다 모래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모래장면의 주제 선정으로 상위 범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기록지에 관찰자 코멘트를 적어 현장노트를 작성하였고(김소영, 2008), 3회 관찰 후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용을 메모하고 추상적이었던 연구 주제를 깔대기 모양으로 좁혀가며 관찰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Bogdan & Biklen, 2006).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어나가면서 발견된 사례를 다시 읽으면서 각 내용의 유형에 따라 하위 범주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에 의한 주제 선정하여 범주에 따라 분류된 사례를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모래장면의 해석은 모래놀이치료에서 청소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 지진 경험을 표현하는 상징물,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험을 표현하는 상징물, 상징의 내러티브, 피겨를 관찰하여 Jung의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에서 사용하는 상징 해석의 방법으로 표현된 이미지와 관련된 동화, 설화, 민화 등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배경정보, 주호소, 꿈 등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으

로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면서 모래장면을 분석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참여관찰, 면담, 문서수집, 동영상 촬영, 사진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고(김소영, 2008), 분석한 자료와 연구자의 기록지 및 전사본, 모래사진을 바탕으로 모래놀이치료 전문가 1인과 동료 수퍼비전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하였다.

Ⅴ. 사례분석

짧은 3회기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모든 참가자들은 모래놀이치료 세션 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아졌거나 행복감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모래놀이치료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와 안전, 평화로운 정원, 위험 또는 지진 장면,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신 또는 그들이 믿는 신과 함께 하는 일상, 그리고 미래의 삶과 독립

1. 보호와 안전

이전에 경험 외상과 지진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보호와 안전이다. 네팔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분리된 생활을 7년 이상 지속하였는데, 그들의 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가정에 속해 있거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보호자인 것이다.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과 동물피겨, 울타리 등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2. 평화로운 정원

평화로운 정원은 대부분 식물과 가축이 있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불교에서는 네팔 룸비니의 한 정원을 돌던 중 싯다르타(석가모니)를 갖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연합뉴스, 2015). 정원은 상징적으로 낙원, 축복받은 자들이 사는 들판이며 나아가 서로 길들여져 질서정연한 자연을 상징한다(이윤기, 1994). 가족과 분리된 경험과 지진으로 인해 물리적・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을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되길 바라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3. 위험 또는 지진장면

청소년들은 실제 그들이 경험했던 지진 장면을 묘사하였다. 또한 공격적인 뱀의 등장, 동물과 사람의 전투와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표현하였다.

4. 신 또는 신과 함께 하는 일상

청소년들은 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신 피겨를 놓거나 신전의 장면을 모래상자에 묘사하였다. 신은 대부분 부처, 시바신, 소(동물 피겨)를 놓으면서 힌두교를 언급하였다. 그들은 신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으며 지진과 같은 위험한 상황,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5. 미래의 삶과 독립

연구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으로 만 19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꿈을 표현하거나 분리된 가족들과의 함께 살아가는 집을 주제로 모래장면을 묘사하였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독립하여 살아가는 준비, 분리된 가족과 생활하는 현실에 대해 미래적인 소망을 모래상자에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네팔 대지진을 겪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경험의 상호작용에 따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그들이 이전 개인적 외상경험과 네팔 대지진의 경험을 표현하였고 이러한 창조적인 표현 활동과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그들의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면서 긍정적인 감정표현도 늘어났고 더불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아졌거나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모래장면을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이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뱀, 시바신, 동물이나 괴물들의 위협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옥의 붕괴와 인명피해를 직접적으로 목격하였는데-이전의 개인적인 외상 경험과 함께- 모래장면에서 대부분 평화로운 정원을 나타내면서 극락세계를 바라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전 개인적인 외상과 지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

호를 언어적 표현과 이미지들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은 외상을 신과의 관계 연결로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3명 모두 시바신, 부처 또는 소를 모래장면이나 언어적으로 표현하였다. 시바신은 삶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포괄하면서 넘어서는 초월의 신으로 시바신의 모습을 죽음과 파괴의신, 세 눈의 신, 다섯 얼굴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파괴의 신의 시바신은 생성된 우주를 해체하고 파멸하며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서종순, 2002). 청소년들의 모래상자나 언어적인 언급에서 이전 외상에 대한 것일 수 있겠으나,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는 그들의 관념 속에서 파괴를 통한 창조를 준비하는 신으로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책임지는 신인 시바신의 뜻으로 지진을 바라보는 것을 나타냈다.

언어적인 언급과 위협적인 꿈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큰 눈은 세 눈의 신이라고도 알려진 시바신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신의 뜻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연금술에서의 제 3의 눈은 더 높은 의식의 공간, 내면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문으로서 언급되며, 시바의 이름 중 'Tryambakam'는 '세 눈을 가지고 있는'(having three eyes)이라는 뜻으로 제 3의 눈과 관련된 힌두 뿌라나에서 시바신의 제 3의 눈에서 나온 분노의 불로 까마신(신들이 시바신의 애통을 달래주려 보낸 신)을 재로 태워버리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켰으며, 또 다른 신화이야기에서 시바신의 눈을 가리게 되면서 우주는 어둠에 덮였고 혼돈이 생겨났는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바신이 이마에 다른 눈을 만들어 거기에 불이 나와 우주의 빛을 복원했다는 것으로 묘사된다(서종순, 2010). 시바신의 세 눈은 그가 들고 있는 화살 즉, 신성의 창 벨에도 있는데, 보호의 힘을 상징하며 곤경에서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힌두교 인들은 믿는다.

이처럼 이전의 외상경험과 함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장면과 동시에 등장하는 시바신상과 그와 관련된 소의 피겨의 사용이 흥미롭고, 그들에게 있어 종교는 심리적인 재건을 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모래놀이치료가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을 대부분 자연재해 및 외상에 의해 자극된 감정을 표출하면서 그들이 겪은 경험과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는 전략이나 대처방식 발달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지진 겪은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신상의 피겨사용은 네팔의 종교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감정표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네팔 대지진을 겪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 3명의 사례를 다룬 것으로 일반화의 어려움과 그들의 가족사, 생육사 등 입소 이전의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지 못한 점 등이 제한점이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많은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팔 대지진을 겪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들에게 외상관련 심리치료접근에 있어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구본용 (2011). 재난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곽민영 (2015).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대학원.

권일남 (2014). 세월호 사건 이후 청소년 지도·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133-133.

김기태 (2006). 제3판 일상생활의 위기와 극복방법 위기개입론. 파주: 대왕사.

김대현 (2016). “네팔 대지진 참사 1년, 아직도 복구는 멀지만…”. 조선닷컴. 2016. 04. 22

김미형 (2008). 모래상자놀이가 장기보호시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김민정, 이경하 (2014). 지시적 집단모래상자놀이가 위축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8(1), 29-55.

김소영 (2008). 만 5세 유아들의 모래놀이의 집단 구성, 놀잇감 및 주제 선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윤주 (2002). 신체화에 있어 문화심리학적 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은혜 (2006).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김정은 (2016). 위대한 공존. 서울: 반니.

김학분, 서완석, 공정식, 배대석 (2014). 한국판 임상가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척도: 아동 및 청소년용 실시지침서. 맥스메디카.

류승희 (2013). 가정환경특성과 학교환경특성이 청소년의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종순 (2002). 시바신은 왜 결혼을 하였는가: 시바뿌라나에서의 시바신 연구. 인문학 연구. 7, 131-164.

서종순 (2010). 인도종교의 제 3의 눈 상징연구. 남아시아연구, 15(3), 223-248.

신현균 (2000)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양미현, 이은일, 최재욱, 김해준 (2012). 동일본 대지진 구조현장에 파견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관련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4(2), 167-179.

연합뉴스 (2015). <네팔 지진> 힌두교·불교도, 대재앙 어떻게 보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7/0200000000AKR20150427160100009.HTML

오혜영, 안현의, 김은영 (2012). 재난피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개입모델에 관한 개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335-360.
유지현, 박기환 (2009).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인들: 우울, 불랑,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833-852.
이윤주 (2004). 재난피해의 심리적 영향과 재난극복을 위한 심리적 조력의 방법: 아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28-40.
이윤기 (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장영인 (1995).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서울: 인간과 복지.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6.
중앙일보 (2015). 네팔의 종교, 힌두교・불교・이슬람교 공존… 네팔의 종교 현황은?. 온라인 중앙일보. 2015. 05. 01. http://news.joins.com/article/17719462
진희숙 (2010). 아동의 스트레스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채영순 (2000). 모래놀이를 통한 유치원 부적응아의 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최남희 (2006).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 피해자의 사회 복귀.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18.
최남희, 변주훈, 한동일, 임숙빈 (2007). 자연재난 집중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16(2), 139-149.
최현아 (2014).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정신화 능력이 품행장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황선상 (2007). 힌두교-한눈에 보는 힌두교의 세계. 서울: 예경.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조준호 (2004). 우파니샤드 철학과 종교. 서울: 경서원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8. 20). '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28851&cid=50766&categoryId=50794
Allen, J. G. (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ogdan, R. C., & Biklen, S. K. (2006).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Massachusetts: Allyn & Bacon.
Cohen, J. A. (2003). Treating acute posttraumatic reac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iological Psychiatry, 53*(9), 827-833.
Connor, K. M. (2006). Assessment of resilience in the aftermath of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7, 46-49.

Cohen, J. A. (2003). Treating acute posttraumatic reac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iological Psychiatry, 53*(9), 827-833.

Everstine, D. S. & Everstine, L. (1993). *The Trauma Response.* New York: Norton Professional Books.

Kestly, T. (2001). Group sandplay in elementary schools. *School-based play therapy*, 329-349.

Lacroix, L. Rousseau, C. Gauthier, M. F. Singh, A. Giguère, N. & Lemzoudi, Y. (2007). Immigrant and refugee preschoolers' sandplay representations of the tsunami. *The Arts in Psychotherapy*, *34*, 99-113.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Rutter, M. (2008). Developing concept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Hudziak J. J. (e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Well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 pp. 3-2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Kalff, D. M. (2003).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Temenos Press.

Lacroix, L., Rousseau, C., Gauthier, M. F., Singh, A., Giguère, N., & Lemzoudi, Y. (2007). Immigrant and refugee preschoolers' sandplay representations of the tsunami. *The Arts in Psychotherapy, 34*(2), 99-113.

투고일 : 2016. 04. 30
수정일 : 2016. 06. 21
게재확정일 : 2016. 06. 25